영어어문교육 *제18권* 4호 2012년 겨울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통해서 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정책방향 연구*

이 종 복**
(목원대학교)
전 영 주***
(목원대학교)
김 찬 중
(충북대학교)
엄 태 송
(목원대학교)

Lee, Jong-Bok, Jeon, Young-Joo, Kim, Chan-Jung, & Um, Tae-Song. (2012). An NET policy research based on Korean co-teachers' percep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4), 385-410.

The pros and cons exist in having native English teachers (NET) in Korean English classrooms. Seoul, Gyeonggi and Gangwon Offices of Education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stop having NETs in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policies require gradual and predictable changes for the stability of curriculum operation at schools. To help make informed decisions on NET policy, this study took surveys of 127 middle and high school Korean English teachers across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areas, one teacher a school from 127 schools regarding the NET polic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6 categories and 35 questions asking about satisfaction, contribution, in-class rol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results were quantified and took further interview where it needed qualitative supplementation. The findings were: Teachers in rural areas, middle schools and who don't practice TEE are more satisfied with NETs than teachers in other areas, high schools and who practice TEE in their English classes respectively. This result demands that the NET policy decisions sh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different needs of NETs between areas, between school levels and between teachers with and without TEE ability.

[Native English Teacher(NET)/Co-teacher/English education policy, 영어원어민보조교사/한국인협력교사/영어교육 정책]

---

* 이 연구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임(NRF-2010-32A-B00209)
** 제 1저자 *** 교신저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서론

21세기는 부가 지식과 창의에서 나오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수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영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는 커다란 소득 격차가 생기고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낳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영어격차(English divide)와 교육격차(Education divide) 현상이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김희삼, 2011; Park, 2009).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영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하여 전국민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회화가 가능한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전환하고자, 2000년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Teach English in English) 정책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영어회화전담강사제도 도입 등의 실용영어교육 강화 정책들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임병빈, 전영주, 2009). 2005년 5월에 발표된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서는 2010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 중학교에 영어원어민보조교사 1인씩 배치, 2012년에는 고등학교에도 영어원어민보조교사 1인씩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숫자는 2011년의 9,320명(교육과학 기술부, 2012)을 최고점으로 하여, 향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4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영어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동아일보, 2012; 미주한국일보, 2012),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의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수는 2010년보다 2011년에 각각 13명, 153명씩 감축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제도에 대해 그 효율성을 인정하는 연구(고정민, 2010; 김성연, 2011; 김신혜, 곽병권, 2002; 김정렬, 한희정, 2009; 김혜련, 고경석, 2008; 박진은, 한신일, 김현철, 2011; 조정순, 이현숙, 2012)와 그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결과(박미정, 나경희, 2009; 신용진, 1999; 차미자, 이길영, 2006; 홍성심, 정양수, 2006)가 있다. 연구는 또한 학교급별로, 영어의 네 가지 기능별로, 지역별로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가 달랐음도 함께 보고하고 있다(김정렬, 한희정, 2009; 이종복, 김현주, 전영주, 2012; 조정순, 이현숙, 2012). 이렇듯 찬, 반론이 팽팽한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정책의 향방을 정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며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실행되어 급변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정책에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 수립과 의사소통중심 영어수업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영어공교육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도시와 농산어촌을 골고루 포함한 전국 127개의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어교사 1인씩을 직접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만나서 각 학교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현황에 대해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교육의 주체 중의 하나이며, 실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함께 협력수업을 하고, 해당 학교의 영어원어민보조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적이 있는, 한국인 협력교사들이 갖고 있는 영어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인식을 기반하여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정책에 대한 찬성론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제도가 한국의 영어교육에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로는 김신혜와 곽병권(2002), 김정렬과 한희정(2011), 고정민(2010), 김성연(2011), 조정순과 이현숙(2012)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학교급이나 지역에 따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달랐는데, 이종복, 최지은, 전영주(2011)의 연구에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도시보다는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공교육에서의 영어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의존도와 만족도가 컸음을 보고했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가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김정렬과 한희정(2009)은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영어성취도가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전국의 16개 시, 도 교육청별로 골고루 표집한 10개 초등학교의 626명 학생들의 각 기능별 향상도를 분석한 김정렬과 한희정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수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비교해 영어 학력 수준이 낮고 양질의 영어 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이 지역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통한 원어민 교사의 수업경험을 확대시켜줌으로써 고질적인 지역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201).

학교급별에 따른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조정순과 이현숙(2012)의 서울교육종단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원어민보조교사 수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고, 모든 학교급에서 원어민수업 경험이 많을수록 영어성취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사교육과 EBS 수강, 학생의 배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의 원어민보조교사 효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유의미하였다고 밝히면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어성취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원어민보조교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특별히 확대 배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는 2014년도부터 서울시의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감축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미주한국일보, 2012)와 상반되는 면이 있다. 대학입시 위주의 학습방식이나 분위기로 인해 고등학교에서의 원어민 효과가 낮았다는 연구(조정순, 이현숙, 2012; 차미자, 이길영, 2006)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고등학교의 경우이며 오히려 중학교 급이야말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어떤 학교급보다도 의사소통중심의 영어수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야 할 단계의 학교급이므로, 금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처럼 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없애는 것은 최근 국가영어공인화시험(NEAT)으로의 평가혁신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변혁을 시도하는 실용영어와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정책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대도시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초, 중학교에서의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을 주장하는 조정순과 이현숙(2012)의 다음 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줄 필요가 있으며, 학교수업 이외에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원어민 교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영어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p. 29).

한편,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인턴십을 준비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특성화고에 원어민보조교사를 1인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인턴십 준비를 위해 원어민보조교사(영어, 일본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공감코리아, 2011). 이를 위한 예산 또한 2011년 9억원에서 2012년에는 1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산의 80%는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며, 충남 교육청은 20%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충청남도의 모든 특성화고에는 학교당 1인씩의 영어원어민보조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특성화고에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영어(ESP; English as a special purpose)를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영어교육 및 진로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정책에 대한 반대론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정책에 대한 반대론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어교육학계보다는 교육학계에서 더욱 많이 주장되어 왔다. 홍창남, 김훈호, 이쌍철, 정성수(2009)는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자료를 사용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이 중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 및 자신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의 경우 영어 사용 자신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실제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영어 성취도 및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보다는 학생 스스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의 자각과 동기유발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제언했다.

영어교육학계의 연구 중 차미자와 이길영(2006)은 특성화고(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정의적 반응을 연구하였다. 차미자와 이길영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원어민 수업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영어 실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마무리 지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광주(199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했다. 차미자와 이길영은 임지인(1996)의 연구를 함께 소개하였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지인의 연구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중학생들의 영어 불안감을 낮춰주는 등, 정의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이런 정의적 효과를 원어민교사를 통해 얻지 못했고, 오히려 통합적 동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더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이러한 차미자 이길영(2006)의 연구결과는 2011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서울시 학부모의 62.2%, 학생 중의 53.7%가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나고 수업을 잘하는 한국교사"를 바람직한 영어교사 유형으로 꼽았다. 이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호하는 비율인 학부모 26.9%, 학생 29.7% 보다 높았다(한겨레신문, 2011). 서울시교육청은 이 연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서울의 초, 중, 고교 1282 곳의 재학생(2만 8761명)과 학부모(1만 1980명), 영어교사(2406명), 원어민영어보조교사 (5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학부모의 54.2%, 학생의 60%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람직한 영어교사의 유형으로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나고 수업을 잘하는 한국교사(62.2%)"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영어원어민보조교사(26.97%) 보다 선호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 보고이기도 하다(서울신문, 2011).

홍성심과 정양수(2006)의 연구나 박준언, 최희경, 최춘옥, 윤유진(2010)의 연구에서도 주장하듯이, 원어민교사 자체에 대한 맹신보다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협력교사 사이의 협력수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전영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010), 원어민의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넘어서서 원어민보조교사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언되는 사실이다(강남준, 김지은, 김현숙, 박정기, 2008; 김신혜, 곽병권, 2002; 권미분, 2009; 김정렬, 2011; 박옥순, 김병찬, 2012; 이미진, 성귀복, 2011; 황나영, 황여정, 김경근, 2011).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영어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인 협력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 34명, 충남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 27명, 광주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 38명, 강원도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 28명으로 총 127명이었고 설문 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성

	교사의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	36	28.3
	여	91	71.7
연령	20대	24	18.9
	30대	43	33.9
	40대	44	34.6
	50대	13	10.2
	60대	1	0.8
	무응답	2	1.6
교직경력	3년 미만	14	11.0
	3-5년	35	27.6
	6-10년	14	11.0
	11-15년	18	14.2
	16-20년	12	9.4
	21년 이상	34	26.8
학교규모	35학급 이상	19	15.0
	21-34학급	65	51.2
	15-20학급	9	7.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0-14학급	10	7.9
	9학급 이하	23	18.1
	무응답	1	0.8
지역단위	특별시 및 광역시	71	55.9
	중소도시	32	25.2
	읍	11	8.7
	면	13	10.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상황	모든 수업 100% 영어진행	1	0.8
	영어로 80%이상 진행	7	5.5
	영어로 50%이상 진행	41	32.3
	영어로 20%이하 진행	36	28.3
	우리말로 수업진행	21	16.5
	원어민과 협력수업만 영어로 진행	20	15.7
	무응답	1	0.8
	합계	127	100.0

표 1의 마지막 항목인 한국인 협력교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진행 상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보고와는 조금 다른 현황을 나타낸다. 즉,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6월 전국의 영어교사 33,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1]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의 조사에서는 19.9%의 영어교사가 주당 1시간 이상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답했고, 2007년 에는 33.5%의 교사가 현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하지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본 설문에서 한국인 교사들이 밝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비율은 교과부의 조사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정착이 아직 덜 되었다면,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제도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TEE 수업진행을 해야 하는 한국인 협력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영어원어민보조교사는 127명으로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의 정의를 매 수업시간의 80%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2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특성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특성		빈도	비율(%)
원어민성별	남	70	55.1
	여	41	32.3
	무응답	16	12.6
원어민연령	20대	57	44.9
	30대	29	22.8
	40대	8	6.3
	50대	15	11.8
	60대	3	2.4
	무응답	15	11.8
원어민수업경력	1년 미만	29	22.8
	1-2년	40	31.5
	3-4년	25	19.7
	5-10년	14	11.0
	10-20년	2	1.6
	무응답	17	13.4
한국어능력	전혀 못함	45	35.4
	하(기초적 의사소통)	55	43.3
	중(일상적 의사소통가능)	6	4.7
	상(한국어 능숙)	5	3.9
	무응답	16	12.6
TESOL	유	25	19.7
	무	78	61.4
	무응답	24	18.9
합계		127	100.0

2. 연구도구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있다. 각 설문지의 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알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모두 .7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였다. 설문지의 각 영역과 문항수는 표 3과 같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3

한국인 협력교사 인식조사 설문지의 구성

요 인	문항수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실태	7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수업	7
선호수업 형태	5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수업의 효과	7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효과부족 이유	5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4
전체	35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예비조사 과정이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연구는 중학교 교사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 모든 영역의 신뢰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구자가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외부 특강을 마친 후 즉각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3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고 총 127부를 자료처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강 간 쉬는 시간과 이메일을 통하여 영어교사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SPSS 18.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실태,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영어수업 실시에 대한 인식, 선호수업 형태,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수업의 효과,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효과 부족 이유와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T검증,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V. 연구결과

1.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일반적인 인식은 표 4와 같다.

표 4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문항	M	SD
교육현장에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3.08	1.10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67	0.99
영어원어민교사와의 팀티칭이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2.99	0.97
교육청은 영어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적극적이다	3.05	0.90
학교 내에서 원어민 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67	0.98
영어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방과 후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66	0.95
영어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교내 영어캠프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88	0.97
운영실태	20.04	4.83

표 4에 따르면 '교육현장에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의 평균(3.08)이 가장 높았고, '교육청은 영어 원어민보조 교사 관리에 적극적이다'는 응답이 그 다음(3.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과 후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의 평균이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성에 따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의 M값은 표4에서 소개된 중간 범주인 '운영실태'에 속하는 하위범주 7개 각 항목의 평균의 합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5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성에 따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비교

교사 특성		M	SD	F	p
성별	남	20.42	5.40	.534	.594
	여	19.89	4.61		
연령	20대	20.82	5.20	2.261	.085
	30대	18.45	4.49		
	40대	21.02	4.59		
	50대 이상	20.67	5.50		
교직경력	3년 미만	17.92	5.33	1.349	.249
	3-5년	19.53	5.05		
	6-10년	19.00	4.34		
	11-15년	22.06	4.12		
	16-20년	20.42	3.42		
	21년 이상	20.65	5.21		
학교규모	35학급 이상	18.13	3.36	1.102	.352
	21-34학급	20.02	5.18		
	10-20학급	20.53	4.61		
	9학급 이하	21.00	4.88		
지역단위	특별시 및 광역시	19.69	4.51	.464	.630
	중소도시	20.27	5.24		
	읍, 면	20.81	5.30		
영어수업 진행	영어로 50% 이상 진행	20.11	4.95	1.811	.149
	영어로 20% 이하 진행	20.59	4.36		
	우리말로 수업 진행	17.40	4.19		
	원어민과의 협력수업만 영어로 진행	20.74	5.43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남교사의 인식(20.42)이 여성(19.89)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교사의 인식(21.02)이 가장 높은 반면 30대 교사의 인식(18.4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직경력 별로 살펴보면 11년-15년 교사경력의 집단 평균(22.06)이 가장 높았고, 3년 미만 교사경력이 집단 평균(17.92)이 가장 낮았다.

학교규모별로 보면 9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집단의 평균(21.00)이 가장 높았고, 35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집단의 평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8.13)이 가장 낮았다. 지역단위 별로 보면 읍. 면 단위에 근무하는 교사 집단의 평균(20.81)이 가장 높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교사집단의 평균(19.6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원어민과의 협력수업만 영어로 진행하는 교사 집단의 평균(20.74)이 가장 높았고, 우리말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교사 집단의 평균(17.4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한국인 협력교사의 연령에 따른 영어 원어민교사 운영실태 하위문항 인식 비교

하위문항	연령	M	(SD)	F	p
학교 내에서 원어민 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2.41	$(1.05)^{A}$	5.593	.001**
	30대	2.42	$(0.82)^{A}$		
	40대	2.79	$(0.99)^{A}$		
	50대 이상	3.54	$(0.88)^{B}$		
영어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교내 영어캠프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대	3.09	$(1.08)^{AB}$	2.945	.036*
	30대	2.54	$(0.87)^{A}$		
	40대	3.05	$(0.96)^{AB}$		
	50대 이상	3.15	$(0.90)^{B}$		

*p<.05, **p<.01

한국인 협력교사의 연령에 따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실태 하위문항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 내에서 원어민 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인식을 보였고 이는 F=5.593으로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방법 중 Duncan을 선택한 결과 20대, 30대, 40대 집단과 50대 이상의 집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20대, 30대, 40대 교사 집단보다 50대 이상의 교사집단이 학교 내에서 원어민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교내 영어캠프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945, p<.05). 50대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20대와 40대 집단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30대 집단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7

한국인 협력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영어원어민교사 운영실태 하위문항 인식 비교

하위문항	교직경력	M	(SD)	F	p
영어 원어민교사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년 미만	2.00	(0.88)^{A}	2.363	.044*
	3-5년	2.55	(1.00)^{AB}		
	6-10년	2.71	(1.07)^{B}		
	11-15년	3.11	(0.83)^{B}		
	16-20년	2.67	(0.89)^{AB}		
	21년 이상	2.82	(1.01)^{B}		
학교 내에서 원어민 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년 미만	2.62	(0.87)^{A}	2.823	.019*
	3-5년	2.21	(0.89)^{AB}		
	6-10년	2.50	(0.85)^{AB}		
	11-15년	2.94	(1.00)^{B}		
	16-20년	2.83	(0.83)^{AB}		
	21년 이상	3.00	(1.06)^{B}		

*p<.05

한국인 협력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실태 하위문항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영어원어민보고교사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은 교직경력이 11-15년 집단의 평균(3.11)로 가장 높았고, 3년 미만 집단의 평균(2.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교직경력 3년 미만 집단은 6-10년, 11-15년, 21년 이상 집단과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F=2.363, p<.05).

'학교 내에서 원어민 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은 교직경력이 21년 이상인 집단의 평균(3.00)이 가장 높았고, 3-5년인 집단의 평균(2.2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3년 미만의 집단은 11-15년 집단, 21년 이상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2.823, p<.05).

한국인 협력교사의 근무 지역단위에 따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운영실태 하위문항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 내에서 원어민 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은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인식 (3.13)을 보였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인식(2.48)을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중소도시 집단은 읍. 면, 특별시 및 광역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999, p<.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8

한국인 협력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영어 원어민교사 운영실태 하위문항 인식 비교

하위문항	지역단위	M	(SD)	F	p
학교 내에서 원어민 관련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	2.48	(0.88)^{A}	4.999	.008**
	중소도시	3.13	(0.97)^{B}		
	읍, 면	2.63	(1.10)^{A}		
영어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과 후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	2.49	(0.92)^{A}	3.252	.042*
	중소도시	2.77	(0.84)^{AB}		
	읍, 면	3.05	(1.07)^{B}		

p<.05, **p<.01

'영어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과 후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문항에서 읍. 면 집단의 인식(3.05)이 가장 높았고, 특별시 및 광역시 집단의 인식(2.49)이 가장 낮았다. 사후분석 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 집단과 읍. 면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252, p < .05).

2.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영어수업에 대한 인식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영어수업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일반적인 인식 경향은 표 9와 같다.

표 9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영어수업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하위문항	M	SD
영어 수업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	2.85	1.00
의사소통중심 수업을 잘 이끌고 있다	2.97	1.04
학생들의 참여를 잘 유도한다	3.06	1.07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74	1.00
학생들을 잘 통제한다	2.41	1.13
영어와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을 잘 이끌어 낸다	3.06	0.96
의사소통적으로 유의미한 질문을 많이 한다	2.93	0.96
수업인식	19.98	5.9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9에 따르면 '학생들의 참여를 잘 유도한다'는 문항과 '영어와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을 잘 이끌어 낸다'는 문항의 평균(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들을 잘 통제한다'는 문항이 평균(2.4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문항	M	SD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2.98	0.90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16	1.02
한국인 영어교사의 회화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3.20	0.98
정부에서 유도하는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2.78	0.98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제도는 유용하다	2.29	0.97
영어원어민보조교사로 인해 영어교육관련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	1.91	0.83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으로 지역 간 영어교육 격차가 줄었다	2.18	1.01
효과성 인식	18.39	5.42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의 하위문항을 보면 '한국인 영어교사의 회화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의 평균(3.20)이 가장 높았고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문항의 평균(3.16)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어원어민보조교사로 인해 영어 교육관련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문항의 평균(1.9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1

한국인 협력교사 특성에 따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성 인식 비교

교사특성		M	SD	F	p
성별	남	20.42	5.36	2.601	.011*
	여	17.60	5.27		
연령	20대	19.36	3.76	.297	.828
	30대	18.08	5.76		
	40대	18.50	5.52		
	50대 이상	18.00	6.77		
교직 경력	3년 미만	17.18	5.34	.171	.973
	3-5년	18.53	5.21		
	6-10년	19.00	5.29		
	11-15년	18.76	5.68		
	16-20년	18.00	4.09		
	21년 이상	18.35	6.31		
학교 규모	35학급 이상	16.65	4.11	.879	.454
	21-34학급	18.27	5.78		
	10-20학급	19.28	5.19		
	9학급 이하	19.17	5.31		
지역 단위	특별시 및 광역시	18.34	4.84	.655	.521
	중소도시	17.77	6.42		
	읍, 면	19.58	5.73		
영어 수업 진행	영어로 50% 이상 진행	17.62	5.36	1.372	.255
	영어로 20% 이하 진행	19.94	5.10		
	우리말로 수업 진행	17.63	4.49		
	원어민과의 협력수업만 영어로 진행	18.21	6.70		

*p<.05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교사의 인식(20.42)이 여교사(17.60)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T=2.601, p<.05).

그 밖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연령별로 보면 20대 교사 집단의 인식(19.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인 집단의 인식(18.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직경력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으로 보면 6-10년인 집단이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에 대한 효과성을 가장 높게 인식(19.00)하고 있었고 3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게 인식(17.18)하고 있었다. 학교규모별로 보면 10-20학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집단의 인식(19.28)이 가장 높았고 35학급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집단의 인식(16.6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단위별로 살펴보면 읍. 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집단의 인식(19.58)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집단의 인식(17.77)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수업을 영어로 20%이하 진행하는 집단의 인식(19.94)이 가장 높았으며 영어로 50%이상 수업을 진행한다는 집단의 인식(17.6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소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비율이 낮은 교사집단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제도에 대한 효과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Jeon과 Lee(2006)의 연구에서처럼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제도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협력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이론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원어민교사의 활용 효과성에 대한 하위문항별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한국인 교사의 성별에 따른 원어민교사 활용의 효과성 하위문항 인식 비교

하위문항	남		여		T	p
	M	SD	M	SD		
한국인 영어교사의 회화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3.50	0.83	3.09	1.01	2.115	.036*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영어 원어민교사 제도는 유용하다	2.65	1.07	2.15	0.90	2.596	.011*
영어원어민보조교사로 인해 영어교육관련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	2.27	0.98	1.78	0.73	3.026	.003**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으로 지역간 영어교육 격차가 줄었다	2.61	1.03	2.01	0.96	2.956	.004**

*p<.05, **p<.01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 협력교사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하위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회화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에서 남교사의 인식(3.50)이 여교사의 인식(3.09)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T=2.115로 p<.05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수준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제도는 유용하다'는 문항에서도 남교사의 인식(2.65)이 여교사의 인식(2.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2.596, p<.05), '영어원어민보조교사로 인해 영어교육관련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문항에서도 남교사의 인식(2.27) 여교사의 인식 (1.78)보다 높게 나타났고(T=3.026, p<.01),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으로 지역간 영어교육 격차가 줄었다'는 문항에서도 남교사의 인식(2.61)이 여교사의 인식(2.0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2.956, p<.01)이 같은 차이 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4. 선호수업 형태에 대한 인식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한국인 협력교사가 선호하는 수업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선호수업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수업형태	빈도	비율(%)
매시간 협력수업	18	14.2
듣기· 말하기 시간만 협력수업	65	51.2
듣기· 말하기 시간 영어원어민보조교사 단독수업	32	25.2
매시간 한국인교사 단독 영어로 수업	7	5.5
영어원어민보조교사 단독 수업	3	2.4
무응답	2	1.6
합계	127	100.0

한국인 협력교사가 가장 선호하는 수업형태는 '듣기. 말하기 시간만 협력수업' 형태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듣기. 말하기 시간에 영어원어민보조교사 단독 수업'이 25.2%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도가 낮은 수업 형태는 '매시간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혼자 수업' 하는 형태로 1.6%로 분석되었다.

5.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효과부족에 대한 인식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활용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4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 효과부족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효과부족 이유	빈도	비율(%)
영어원어민교사의 관리 및 연수를 지원해 주는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	14	11.0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부족	17	13.4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교수법 지식과 수업 능력 부족	29	22.8
주당 1,2시간의 협동수업으로 궁극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불가	56	44.1
원어민보조교사의 평가권 부재로 수업이 통제되지 않아 효율적 수업이 불가능함	6	4.7
무응답	5	3.9
합계	127	100.0

위 표에 따르면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 부족에 대해 '주당 1. 2시간의 협동수업으로는 궁극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불가능' 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44.1%로 가장 많았고,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교수법 지식과 수업 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22.20%)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평가권 부재로 수업이 통제되지 않아 효율적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4.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부족에 대한 인식을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징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협력교사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교사, 여교사 모두 '주당 1,2시간의 협동수업으로 궁극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불가' 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직경력으로 살펴보면 3년 미만 교사집단은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의 효과부족에 대해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교수법 지식과 수업능력 부족'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42.9%)이 가장 높았고, 교직경력이 3-5년, 6-10년, 11-15년, 16-20년 집단에서는 '주당 1,2시간의 협동수업으로 궁극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불가' 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직경력이 21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교수법 지식과 수업 능력 부족', '주당 1,2시간의 협동수업으로 궁극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불가'에 대한 응답이 똑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규모, 지역단위, 영어수업진행에 따른 분석에서도 '주당 1,2시간의 협동수업으로 궁극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불가' 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교수법 지식과 수업능력이 부족' 하다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5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성에 따른 영어원어민보조교사 활용 효과부족 인식

교사특성		영어 원어민교사의 관리 및 연수를 지원해 주는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	영어원어민 보조교사의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부족(%)	영어원어민 보조교사의 교수법 지식과 수업 능력 부족(%)	주당 1,2시간의 협동수업으로 궁극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불가(%)	원어민보조교사의 평가권 부재로 수업이 통제되지 않아 효율적 수업이 불가능함(%)
성별	남	4(11.4%)	4(11.4%)	5(14.3%)	20(57.1%)	2(5.7%)
	여	10(11.5%)	13(14.9%)	24(27.6%)	36(41.4%)	4(4.6%)
교직경력	3년 미만	2(14.3%)	2(14.3%)	6(42.9%)	4(28.6%)	0(0.0%)
	3-5년	4(12.1%)	4(12.1%)	5(15.2%)	17(51.5%)	3(9.1%)
	6-10년	2(14.3%)	2(14.3%)	2(14.3%)	8(57.1%)	0(0.0%)
	11-15년	4(22.2%)	4(22.2%)	3(16.7%)	7(38.9%)	0(0.0%)
	16-20년	0(0.0%)	1(8.3%)	2(16.7%)	9(75.0%)	0(0.0%)
	21년이상	2(6.5%)	4(12.9%)	11(35.5%)	11(35.5%)	3(9.7%)
학교규모	35학급이상	2(11.1%)	3(16.7%)	4(22.2%)	9(50.0%)	0(0.0%)
	21-34학급	7(10.8%)	9(13.8%)	15(23.1%)	31(47.7%)	3(4.6%)
	10-20학급	4(23.5%)	2(11.8%)	5(29.4%)	6(35.3%)	0(0.0%)
	9학급이하	1(4.8%)	3(14.3%)	5(23.8%)	9(42.9%)	3(14.3%)
지역단위	특별시 및 광역시	10(14.7%)	9(13.2%)	12(17.6%)	34(50.0%)	3(4.4%)
	중소도시	2(6.3%)	4(12.5%)	12(37.5%)	13(40.6%)	1(3.1%)
	읍, 면	2(9.1%)	4(18.2%)	5(22.7%)	9(40.9%)	2(9.1%)
영어수업진행	영어로 50%이상 진행	4(8.5%)	8(17.0%)	15(31.9%)	20(42.6%)	0(0.0%)
	영어로 20%이하 진행	7(20.0%)	4(11.4%)	9(25.7%)	12(34.3%)	3(8.6%)
	우리말로 수업 진행	1(4.8%)	3(14.3%)	1(4.8%)	13(61.9%)	3(14.3%)
	원어민과의 협력수업만 영어로 진행	2(11.1%)	2(11.1%)	3(16.7%)	11(61.1%)	0(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6.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인 협력교사의 인식

활용방안	M	SD
원어민보조교사 '자격인증제도' 마련하여 자격 있는 원어민 투입	3.40	0.86
원어민보조교사를 더 많이 확보하여 협력수업시수 증가	1.89	1.04
원어민교사에게 의사소통중심 영어수업 기술을 지도	2.85	0.83
원어민보조교사 단독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2.07	1.07

한국인 협력교사가 생각하는 영어 원어민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자격있는 원어민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영어원어민보조교사에게 의사 소통중심 영어수업기술을 지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영어원어민보조교사를 더 많이 확보하여 협력수업시수 증가'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 협력교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직경력, 학교규모, 지역단위, 영어수업진행정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원어민 영어교사보다 한국인 영어교사 양성에 더 많이 투자하여 장기적으로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 영어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연수(신규원어민보조교사연수 및 문화와 학교생활에 대한 지속적 연수) 강화,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방과 후에 원어민영어교사 투입, 영어원어민보조교사 대신 교포나 외국 체류경험이 있는 내국인을 보조교사로 활용,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학생들의 말할 기회 증가 등이 있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V. 결론 및 제언

그 간의 영어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연구가 전국적인 실태나 인식조사 보다는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이루어진 정책연구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도시와 농산어촌, 즉 전국에 걸친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 등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강남준 외, 2008; 김성연, 2011; 조정순, 이현숙,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127개의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협력교사 1인씩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교의 한국인 영어교사와 함께 근무하는 영어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의 수업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는 원어민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987년 도입된 일본의 JET(Japan Exchange and Teaching)프로그램, 2006년에 150,000명의 EFL 교사(원어민영어교사)를 고용하였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영어원어민교사 정책, 2003년부터 영어원어민교사를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하며 한국의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대만, 1998년부터 원어민영어교사 정책을 도입하여 2002년에 이미 공립초등학교 두 군데 당 한 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해 온 홍콩 등, 동아시아는 영어원어민을 활용한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Jeon & Lee, 2006; Lee & Jeon, 2011).

우리나라도 1995년 EPIK(English Program in Korea)프로그램에 의해 초청된 원어민영어교사 54명을 시작으로 지난 18년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에는 9,320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일선 공교육 현장에 배치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숫자는 줄기 시작했으며, 향후 그 감소폭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어민보조교사의 감축이 필요한 곳은 감축을 하고, 현행 유지 혹은 확대가 필요한 학교급이나 지역에서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유지 혹은 확대하는 것이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습자중심 영어교육'이 아닐까 하는 제언을 해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게 계속해서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한국의 영어교육을 담당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김정렬, 2011; 강남준 외, 2008; 박준언 외, 2010; 차미자, 이길영, 2006). 하지만 장기적 목표는 그러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각 학교와 학교급, 지역의 요구와 필요를 철저히 조사하여 각 학교별 맞춤식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도시보다는 농산어촌에,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에, 해당 학교의 협력교사가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협력수업으로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진행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감축하지 말고 유지하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초등학교에서 이루어 온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이 중학교에서도 유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과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서라도 영어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받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남준, 김지은, 김현숙, 박정기. (2008). *경기도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실태 분석 및 효율화 방안.*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2005). *영어교육 활성화 5 개년 종합대책.*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00). *영어 수업 활성화 대책.*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08).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7 년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및 초중고 영어 교사현황.*월드와이드웹:http://www.mest.go.kr/web/1121/ko/board/view.do?bbsId=159&boardSeq=8312 에서 2011 년 7 월 25 일 검색했음.

교육과학기술부. (201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통계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고정민. (2010). 교수법,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원어민 교사 및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초등 영어교육 실태. *영어교과교육, 9*(3), 101-118.

공감코리아. (2011). *충남 특성화고 취업희망 학생 전원 취업을 위해 교과부, 충청남도, 교육청, 상공회의소가 힘을 합친다.* 월드와이드웹: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dataId=155800262 에서 2012 년 8 월 20 일에 검색했음.

권미분. (2009). 원어민교수의 수업 질과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51*(2). 199-218.

김성연. (2011). 원어민 교사의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역량 평가. *외국어교육, 18*(2), 209-232.

김신혜, 곽병권. (2002).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 9*(3), 211-241.

김정렬. (2011).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도 제고 방안. *초등영어교육, 17*(3), 7-31.

김정렬, 한희정. (2009).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21*(3), 183-202.

김혜련, 고경석. (2008).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실태: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14*(2), 23-43.

김희삼. (2011).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동아일보. (2012). *영어원어민교사 철수, 교육불평등 논란 점화.* 월드와이드웹: http://news.donga.com/3/all/20120319/44873910/1 에서 2012 년 4 월 20 일에 검색했음.

미주한국일보. (2012). *서울 중고교 원어민 영어교사 없앤다.* 월드와이드웹: http://www.koreatimes.com/article/743125 에서 2012 년 7 월 31 일 검색했음.

박미정, 나경희. (2009). 원어민보조교사와의 협동수업이 중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영문학, 53*(1), 61-88.

박옥순, 김병찬. (2012).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학교 적응 전략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1), 227-256.

박준언, 최희경, 최춘옥, 윤유진. (201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및 관리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외국어교육, 17*(2), 229-255.

박진은, 한신일, 김현철. (2011). 공교육 내실화 추진정책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1), 61-82.

서울신문. (2011). *"원어민 교사보다 한국인 교사 선호" 서울시교육청 영어 공교육 조사.* 월드와이드웹: http://www.seoul.co.kr/news/newsView. php?id= 20111128009044 에서 2012 년 7 월 1 일 검색.

신용진. (1999), 영어교실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대화 촉진 방안. *언어학, 7*(1), 283-303.

이미진, 성귀복. (2011). 영어 협력수업에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역할 양상 연구. *교육문화연구, 17*(1), 225-260.

이종복, 김현주, 전영주. (2012).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정책과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연구. *영어교과교육. 11*(2), 129-155.

이종복, 최지은, 전영주, (2011). 원어민 영어교사 협력수업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영어교과교육, 10*(3), 213-231.

임병빈, 전영주. (2009).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어문교육, 15*(1), 299-325.

임지인. (1996).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의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전영주. (2010). COLT 수업관찰 분석법을 통한 학교 현장의 의사소통중심 영어 수업 분석. *영어어문교육, 16*(3), 339-363.

정광주. (1998). *원어민 교사의 실제 수업과 그 효과.*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청원대학교, 충북.

조정순, 이현숙. (2012). *2011 서울교육종단연구 발표 자료집.* 서울: 서울시 교육청.

차미자, 이길영. (2006). 원어민 교사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정의적 반응 연구. *The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1*(2), 31-54.

홍성심, 정양수. (2006).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0*(3), 137-16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홍창남, 김훈호, 이쌍철, 정성수. (2009). 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정책의 효과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4), 57-86.

황나영, 황여정, 김경근. (2011). 원어민 영어수업 정책의 실효성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21*(4), 235-262.

한겨레신문. (2011). *영어교육 무조건 원어민이 최고? "실력 뛰어난 한국인 교사가 낫다"*. 월드와이드웹: http://www.hani.co.kr/arti/society/ schooling/ 507407.htm 에서 2012 년 8 월 1 일 검색했음.

Jeon, M. & Lee, J. (2006) .Hiring native-speaking English teachers in East Asian countries. *English Today 88, 22*(4) 43-58.

Lee, Jong-Bok, & Jeon, Young-Joo. (2011). A Comparison of Native-speaking English Teachers Policies in Asian Countries. *2011 KEES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pp. 172-176). Chung-buk: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Park, Sun-Mih. (2009). English Divide: An Investigation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Perception Differences on Public English Education in Different Regions.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7*(2), 135-151.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and Secondary

이종복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번지
Tel: 042-829-7447
Email: jblee@mokwon.ac.kr

전영주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번지
Tel: 042-829-7448
Email: yjjeon@mokwon.ac.kr

김찬중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산동 내수동로 52번지
Tel: 043-261-2330
Email: kcj@chungbuk.ac.kr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엄태송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번지
Tel: 042-829-7440
Email: taesong99@naver.com

Received in July, 2012
Reviewed by August,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